



‘2015 세계 췌장암의 날’

생존율 최하위 ‘췌장암’ 대국민 인식개선 ‘퍼플 리본 선언’

췌장암의 조기진단과 인식개선을 위한 ‘2015 세계 췌장암의 날’ 행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대한췌담도학회(이사장 김호각), 한국췌장외과 연구회(회장 김송철), 한국췌장암네트워크(대표 김선희)는 세계 췌장암의 날(11월 13일)을 맞아 11월 13일 ‘췌장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전체 암종 중 발생률 8위, 사망률 5위에 이르는 췌장암의 심각성을 알리고 질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생존율 최하위, 조기진단 중요

췌장암은 최근 5년간 생존율이 8.7%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선희 한국췌장암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행사는 췌장암에 대한 심각성 홍보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예방, 조기진단, 치료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국민들이 심



▲김호각 대한췌담도학회 이사장이 한국 췌장암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성을 인식하되 조기진단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치료할 경우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정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췌장암 극복을 위해서는 의료진, 연구자 등 전문가뿐 아니라 환자와 가족, 정책수행자, 언론인, 자원봉사자 등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췌장암네트워크가 2014년 시작한 ‘World Pancreatic Cancer Day’에 동참해 매년 11월 13일을 췌장암의 날로 정해 췌장암 ‘퍼플 리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 췌장암 환자나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자원봉사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췌장암 바로 알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췌장암을 바로 알리고 예방과 조기진단 하도록 하며 연구 함양, 환자 지원, 희망 창출을 미션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3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발적으로 췌장암의 날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김선희 대표는 “대한췌담도학회와 한국췌장외과연구회, 관련 전문학회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한 이번 행사는 퍼플 리본 캠페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캠페인 성공을 위해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이들 단체는 췌장암이 완전히 정복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퍼플 리본 캠페인을 추진키로 하는 ‘퍼플 리본 선언’을 했다.

췌장암 환자, 하루 15.3명 발생 14명 사망

김호각 대한췌담도학회 이사장은 ‘한국 췌장암 현황’ 발표를 통해 매일 환자가 15.3명이 발생하고 14명이 사망하는 췌장암은 유일한 치료법이 수술 절제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시기의 조기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암환자의 생존율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반해 췌장암은 우리나라 10대 암 중 최근 5년 생존율 8.7%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지난 20년간 변함이 없는 상태이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 췌장암 발생률은 8위(2.4%)이지만 암 사망자수는 5위(6.7%)”라며 “지난해 우리나라에 5600명의 췌장암 환자가 발생했고 5100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매일 환자 15.3명이 발생하고 14명이 사망하는 꼴이다.

2012년 기준 평균수명까지 생존시 암발생률은 남자 37.5%, 여자 34.9%로 5명 중 1명은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췌장암으로



▲김선회 한국췌장암네트워크 대표(가운데)가 퍼플리본선언을 하고 있다. 김송철 한국췌장외과학회 회장(왼쪽)과 김호각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오른쪽).

인한 진료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만 2829명에서 2013년 1만 3313명, 2014년 1만 8017명으로 연평균 13.47%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췌장암 환자의 연간 진료비는 1000억원에 달하고 입·내원일수 또한 47만 4000일에 달한다. 췌장암의 경제적 비용은 암종 중 최고수준인 6372만원으로 백혈병 6700만원, 간암 6623만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완치 가능 유일한 치료법 ‘수술 절제’

암종 중 조기 발견율이 최하위이며 진단 당시 5~20%만이 수술절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 치료는 췌장에 국한되는 경우 5년 생존율이 27% 정도로 수술을 통해 완치 가능하지만 점유율은 겨우 5%밖에 되지 않는다.

국소진행(점유율 10%)이 될 때는 5년 생존율이 12.5%로 떨어지며 원격전이는 5년 생존율이 불

과 1.7%에 불과한데 비해 점유율은 85%에 달하고 있다. 결국 환자의 85%가 치료불가능한 시기에 발견된다는 뜻이다.

김호각 이사장은 “췌장암은 완치 가능한 유일한 치료법이 수술 절제”라며 “췌장암에 대한 대체 치료가 많이 나와 있지만 증거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췌장암의 치료성적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조기발견을 못하는데 있다”며 “국민들의 췌장암에 대한 인식 개선과 조기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췌장암 관련학회인 대한췌장담도학회(이사장 김호각), 한국췌장외과연구회(회장 김송철), 한국췌장암네트워크(대표 김선회) 등 3개 단체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암협회, 대한소화기암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가 후원했다.

조정희 기자/MP저널